박인철 자서전

박인철이 살아온 두 가지 방법

바다에서 뭍으로 간 사람

맑은샘

차례

제1부 바다로 가는 길

1. 출생에서 승선(乘船)까지 12
   1) 출생 12
   2) 수산고등학교에 진학하다 15

2. 젊은 시절 '박인철'의 항해 일기 19
   1) 광명 61호 20
   2) 선장 23
   3) 동료 선원들 27
   4) 선상 일상(船上日常) 32
   5) 힘들 때도 있었다 40
   6) 거친 바다 53
   7) 조용한 바다 57
   8) 고향 생각 59
   9) 목표를 향하여 66

'바다 생활' 후기 70
바다와 하늘 사이에 '내'가 있었다

제2부 정치로 가는 길

1. 성화기업
   1) 어렵게 시작해서 성공하다 78
   2) 돈보다 사람을 선택하다 79

2. 청년회 활동 81

3. 정치에 배를 띄우다 89
   1) '한 표'의 힘 90
   2) 국립 난대 수목원 유치 92
   3) 시급한 완도항의 효율적인 활용 96
   4) '해양 치유 산업'에 대한 공방 119
   5) 완도 수산물 소비가 침체된 원인은? 132
   6)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의 민낯 155
   7)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182
   8) 입법 활동은 의회의 권한이자 의무 191
   9)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촉구하다 207
   10) 올바른 공직 사회를 위한 제언(提言) 219
   11) 의정 대상 수상 243
   12) 정말, 빡센 해외 시찰 245

현장을 방문하다 250

주변에서 말하는 '박인철' 254

6) 거친 바다

1987년 2월 21일

새벽 3시에 잠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 보니, 좋아질 것 같던 날씨가 어제보다 더 험악하다. 바람과 파도가 뱃전을 때리고, 지친 선원들은 억지로 몸을 가누어 일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다.

대추에게 주려고 2기사와 조기장한테 청심환 2알을 얻어 주었더니, 그것을 먹고 조금 나아졌다고 한다.

명일도 적수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이번 한 달 공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이번 어기(漁期) 성적이 좋아야 차후에 선장 발령을 받는 데 플러스알파가 되는데…….

1987년 3월 7일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치는 가운데 백파(白波)는 매우 심하게 요동치고, 놀란 선원들은 토끼 눈을 하여 몸을 움츠리고 있다. 몇 톤 되지도, 몇 평 되지도 않은 철판에 생명을 의지한다.

하얗게 몰려오는 비를 바라보면서 시원하고 통쾌한 그 어떤 맛을 느낀다. 날아가는 날치를 볼 때는, 아니 하늘의 갈매기를 보면서 날지 못하는 이 내 모습이 하도 처량하여 한숨 또 한숨짓는다. 세상을 호박처럼 둥글게 살아야 하는데, 선상 생활이 외길 인생인가? 정녕 아니겠지!

배를 심하게 피칭, 롤링하여 전후 상갑판에 바닷물이 철철 넘쳐흐르고, 송수신기 고장으로 모든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아, 남태평양에

떠도는 미아가 되는 건가?

불쌍소, 그대의 추한 몰골이! 뭐가 그리 잘났다고 깝죽대며 달려왔소? '두둑뚝뚝' 유리창을 두들기는 빗소리에 무슨 클래식을 찾고 팝송과 가곡을 찾겠소? 두둑거리는 빗소리를 멜로디 삼아 콧노래를 불러 보지만, 발이 시려 손이 시려.

친구가 생각난다. 남위 45도 선상에서 꽁꽁 언 손이 너를 부른다던 그 따뜻한 친구의 우정의 손이 생각난다. 백파에 가려진 수평선. 기압은 자꾸 하강하고 파고는 높아지는데, 유유자적 나르는 갈매기 한 마리. 넘어질 듯 넘어질 듯하면서 제 코스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배.

이 시간에 식당에서는 밥과 싸우고 있다. "꽝" 하는 소리와 동시에 식탁이 깨끗해진다. 음식들이 바닥으로 와장창 굴러 떨어지고 빈 식탁만이 나를 반기는구나. 누가 말했던가, 비 오고, 바람 불고, 파도치면 처마 밑에 있는 개보다 못한 신세라고? 타 선과 연락도 할 수 없는 고립 상태이니 국장이란 놈을 브리지에 잡아 놓고…….

파고가 7~8m는 족히 되겠다. 상갑판에서 돼지도 놀랐는지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리저리 헤맨다.

학창 시절에는 비 오는 날이 그렇게 좋았다. 흠뻑 비를 맞고, 책가방은 옆구리에 끼고, 하얀 고무신에 실습복 또는 교련복, 무슨 영웅 심리였던가?

통상적으로 배에서 돼지를 키웠다. 출항 시에 2~3마리를 배에 실었는데, 배에서는 짬밥이나 참치 내장을 먹이로 주니까 잘 컸다. 돼지는

고사를 지낼 때나 선원들 회식용으로 사용했다.

1987년 4월 15일

곤히 잠들어 있는데, 갑판장이 와서 '당직'이라고 한다. 무슨 소린가 싶어 어리둥절해 있으니 "선장님이 기상이 악화되고 있으니 사관 당직에 2항사를 세우는 것은 무리라고 합니다"라고 갑판장이 전한다.

사람 욕보이는 것도 여러 가지다. 갑판장보다 2항사가 낫지 않은가?

비는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내리고, 바람과 파도는 뱃전을 강타하며, 갑판은 해수로 충만하다. 배는 요동치고 롤링, 피칭하면서도 목적지를 향해 잘도 간다. 63빌딩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백파, 천길만길 낭떠러지보다 더 깊이 내려간다. 바람 소리가 고막을 터뜨린 것처럼 거칠다.

비에 젖고 파도에 젖은 이 추한 몰골. 머리가 아프고 속이 거북하다. 멀미를 하는 걸까? 흔하던 갈매기도 보이지 않고, '쿵꽝쿵꽝' 모두를 삼킬 기세로 파도가 덮쳐 온다. 옆집 떡방아 찧는 소리도 아닌 소리에 선원들이 놀랄 만도 하다.

1987년 12월 5일

추풍낙엽, 풍전등화, 백척간두…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꾸만 높게 높게 올라가고, 천길 만길 낭떠러지 깊은 줄 모르고 곤두박질친다.

저기압 975md, 반경 1100마일, 풍속 55kt, 겨울 바다. 11월 말부터

계속 때리던 비와 바람과 파도. 선원들은 전부 죽는다고 아우성치지만, 알바코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이 거칠고 광활한 북태평양과 싸워야 하는 우리네 모습이 너무 가엾고 보잘 것 없다.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

억만 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 온 이 자리에서 한낱 백 년 살이 미물에 지나지 않은 우리가 저들과 겨루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어찌 하리오! 이것이 우리의 삶 자체인 것을!

1988년 4월 24일

새벽 4시에 기상. 찬바람이 불고 가랑비가 브리지 유리창을 때리더니, 이내 거센 비바람과 파도를 몰고 온다. 배는 이리저리 요동치고 놀란 선원들은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며 아우성친다.

"꿍꽈르르, 꿍꽈르르"

나도 겁난다. 배를 알고부터, 아니 바다를 알고부터 더욱 겁난다. 선장님의 안절부절 하신 행동, 키 잡는 선원들의 놀란 얼굴, 돼지도 겁이 났는지 이리저리 뒹군다.

"꽝" 하면서 브리지 유리창을 사정없이 내려친 저 험한 파도, 천군만마보다 더 무섭게 내 곁을 스쳐간다.

오전 11시. 바다는 어느 정도 평온을 되찾고, 선원들도 안정을 되찾아 모두 밝은 얼굴이다.

1988년 5월 15일

비가 내린다.

바람과 함께 줄기차게 내린다.

후줄근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수평선 쪽을 바라보노라니

한숨 -, 한숨 -

위대한 대자연의 섭리란?

너무 웅장하고 너무 광대한 대자연

나의 초라한 모습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저만치서 바람이 불어오면

비는 어느 덧 내 곁에 와 있다.

비, 구름, 바람의 연합체가 우리를 무섭게 공격한다.

자연의 힘이란?

21세기 문명의 힘으로도, 과학의 세계로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다.

7) 조용한 바다

1987년 2월 25일

대추가 깨우는데 일어나기가 싫었다. 이불을 푹 눌러 쓰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브리지에 나가 어제 쓰지 못했던 항해 일지를 쓰고 해도에다 position을 프로팅했다.

갑판에 내려가서 선원들의 일을 거들어 주고 있는데, 선장님이 나를 찾는다. 선교에 올라가 보니 N.N.S. 위치가 조금 이상하다고 한다. DR하고 위치 오차가 심하여 다음 위치를 확인해서 틀리면 정오 위치를 내보라고 하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나온다.

21세기 첨단 과학 기술이라고 하지만, 내 손으로 관측한 것보다 못해서야 N.N.S.를 믿고 항해할 수 있겠나?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기상이 무척 양호하여 기분이 매우 좋다. 항상 이런 날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담배를 너무 피웠더니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온다. 혼자서 약속을 했거늘 술은 어느 정도 절제하는데 담배만큼은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

1988년 4월 28일

출항 한 달.

청명한 하늘에 수많은 별들과 서쪽 수평선상에 아스라이 걸쳐 있는 달. 제주도 일출봉과 강릉 경포대의 해돋이가 저렇게 찬란할까? 오랜만에 보는 신나는 해돋이다. '쨍' 하고 햇빛이 비추니 그 기쁨 무엇에 비할꼬?

어제 코람 2호 상봉. 연호 형님이 보내 주신 껌을 씹으며 형님의 변해 가는 모습에 저절로 한숨 -

아파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데도 보고만 있자니 창자가 뒤틀리고 메스껍다. 그래서 직접 일을 하려고 하니 아파서 죽겠다. 그래도 고기가 올라오니까 그 맛을 보고 참고 견뎌야지.

1988년 5월 10일

"아!" 환호성이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저 찬란한 해돋이. 잔뜩 찌푸린 하늘에는 갈매기가 혼자서 외로이 날고 있다. 그것도 잠시, 갈매기는 사라지고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한 것이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로 착각할 정도다.

날이 청명하면 저절로 기분도 좋아지고 일을 해도 흥이 난다. 고기도 그런대로 올라오고 바다도 더할 나위 없이 잔잔한데, 내 마음은 왜 이리 괴롭고 서글퍼질까? 진정한 삶은 어떤 것일까? 젊음은 특권이다. 이 좋은 시절에 바다에서 생활해 온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8) 고향 생각

1987년 2월 26일

새벽 3시의 하늘, 수많은 별들
브리지 창문을 여니
늦가을 찬바람이 내 작은 몸을 떨게 한다.
담배 연기에 모든 것을 날려 버리고
먼 수평선을 바라보지만
그저 망망대해뿐
모든 사물들이 잠든 시간
밤손님도 아니요, 박쥐도 아니건만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네
내 고향 동쪽 하늘을

‘바다 생활’ 후기

바다와 하늘 사이에 ‘내’가 있었다

내가 배를 탄 것은 애초에 어떤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수산고등학교를 나오고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다들 어렵게 살던 시기에 나 역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배를 타게 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배를 타다 보니까 선장까지 가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일 잘하는 유능한 선장이 되고 싶었고,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선상 일기에도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다 이겨내고 선장이 될 수 있었다.

선장 생활 2년은 정말 재미있고 행복했다. 어린아이가 간절히 원하던 장난감을 손에 넣었을 때처럼, 나도 선장 생활을 ‘즐겼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 항해사를 하면서, ‘만약 내가 선장이라면 이래이래, 저래저래 할 텐데’ 생각하던 것을 선장이 되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다. 항해사 때의 경험을 살려 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것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어부의 꿈은 곧 ‘만선’(滿船)에 다른 배보다 더 많이 잡는 것을 더한 것이다. 나의 고기잡이 비결은 지금 있는 현장에 충실하자는 것, 즉 고기 떼를 발견하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것이었다.

한번 바다에 나가면 4~6개월은 바다에 떠 있게 된다. 그 기간 동안 대략 350t은 잡아야지 만선이 되는데, 어장을 잘 만나면 3개월 만에, 그렇지 않으면 5~6개월 만에 그 양을 채울 수 있다.

나는 일단 고기 떼를 발견하면 놓치지 않으려고 적수(적당한 수온을 찾아 항해하는 것)를 찾아 따라가곤 했다. 고기잡이배는 유람선처럼 계속 항해만 해서는 안 되고, 조업을 해야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러므로 물고기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조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무슨 달인지(달의 모양에 따라 고기가 있는 수심에 차이가 있다)를 계속 살펴야 했다.

하루에 대개 완도에서 제주도까지의 거리(약 55마일)만큼 투승(그물을 던지는 것)을 한다. 양승(그물을 거둬들이는 것)한 거리에서 어느 지점에 고기가 많고 어느 지점은 그렇지 않은지를 해도에 표시하여 고기가 많이 나오는 지점을 집중 공략했다. 다른 날에 고기가 올라오는 지점이 달라지면 또 그 지점을 집중 공략한다.

가능성 있는 곳에 집중하는 이런 방법은 효율성이 있어서 수고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통상적으로 만선하는 기간을 5개월로 잡지만, 나는 3개월 보름 만에 만선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양 어업에서 만선 기간을 1달 반 단축시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었다. 회사에서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나와 선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31살에 하선(下船)하고 귀국하여 병역 의무(특례병)를 이행했다. 해군으로 342기 훈련 생도들과 6주간의 신병 훈련을 마쳤다.

맨 왼쪽 뒤에서 2번째가 나다

돈을 더 벌려고 생각했다면 군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또 배를 탔을 것이다. 오라는 곳이 많았다. 특례를 마치자 회사에서 자주 연락을 했다. "아직 젊은데, 왜 배를 안 타려고 하느냐? 배는 있으니까 선원 구성해서 나가라" 또 다른 데서도 스카우트에다가 어업 이민 제의까지 들어왔다.

나는 사람을 좋아한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는 것을 좋아한다. 반면에 바다에서의 생활은 고독 그 자체다. 파도와 싸우며 바다에서 석 달 보름에서 6개월 동안 산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모든 게 반복되는 생활이다. 갇힌 공간에서 늘 보는 그 사람들… 고기를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잡고, 파도치면 맞고, 갈매기, 바다, 하늘, 자연… 피하려야 피할 수도 없는 것들이다.

한번은 바다에서 조난을 당한 경험도 있다. 내가 2등 항해사 때의

일이다. 배의 엔진이 고장 나서 정지되고, 통신도 두절된 상태였다. 어쩔 수 없이 1달 정도 다른 배로 예인당해야 했다.

선장을 하기 전에는 '선장'이란 직책에 미련이 있었는데, 선장을 하고 나니까 그 미련도 없어졌다. 그때부터는 나의 선택에 따라 돈을 벌 수도 있는 시기였지만, 미련 없이 '부산이여, 안녕!' 하고 떠나 버렸다. 선장을 했으니까, 바다 생활을 그만두고 육지에 정착해서 새 삶을 살고 싶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인생 2막을 살고 싶었던 것이다.

부산을 떠날 때는 두 번 다시 부산에 오지 않으려고 결심했다. 미적거리다가는 또 탈 것 같아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왔다. 그 뒤로 부산 친구들이 놀러오라고 해도 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나중에 육지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나서 옛날 추억을 찾아보러 간 적이 있다.

내가 선상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기억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임종을 하지 못한 것이다. 내가 선장으로 있을 때였는데, 하와이 입항해서 집에 전화를 걸었다. 그때가 추석 때였다.

먼저 다른 가족들과 통화하고 나서 아버지와 통화하려고 하니까, 노인정에 놀러 가셨다고 했다. 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하와이와 한국의 시간차 6시간을 계산해서 다시 전화를 했다. 그제야 가족들이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알려 주었다. 집에서 일부러 내게 연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미 6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비록 늦었지만, 나는 선상 브리지(선교, 조타실)에 상을 차려 놓고 큰절을 하면서 통곡을 했다.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무에 관하여 사업 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 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0) 올바른 공직 사회를 위한 제언(提言)

(1) 공무원이 갖춰야 할 첫 번째 품성 - '공정'(公正)

● 공무원의 희망은 '승진'

제293회 완도군 의회 임시회에서 박인철 의원은 공무직과 관련해서 "현재 완도 군청 공무직이 370명으로 섬으로 이루어진 군의 특성상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완도군의 현황은 어떤지, 비교해 놓은 게 있는지" 물었다.

이에 총무과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직 인력은 370명으로 전체 인력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인사 부서의 고민이 크다. 고민을 많이 해서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시설물이 늘어나면 공무직을 계속 채용하게 될 텐데, 다시 한 번 조직 진단을 하고 효율적으로 근무자를 배치해야 한다. 시급히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장 핵심은 인사 행정과 관련된 지적이었는데, "공무원이 재직하는 동안 희망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총무과장은 "성과에 보답하는 방법은 '승진'"이라면서 본인 또한 그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방 공무원 채용령과 지방 공무원 평정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 성적 평가에는 실적 평가 50%, 직무 수행 능력 평가 50점을 평점으로 한다. 직무 수행 능력의 경우에는 기획력, 의사 전달력 등 8개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항목별 객관성보다는 평정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다"면서 과장의 생각을 물었다.

총무과장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무 성적을 평정할 때는 지자체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부서장들이 직원들과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애로 사항을 많이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의 희망은 승진이고 그 기준이 근평과 승진 후보 순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헌신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승진 후보자 1순위가 되었는데, 2~3순위 자가 승진하고 1순위인 내가 승진에서 제외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총무과장은 "1순위인데도 승진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실망감과 서운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상위에 있는 공

직자들의 경우엔 언제든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박 의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인사에서 평가 기준이 되는 근평이나 승진 후보자 순위 등은 지켜야 될 원칙이다. 지역 신문에 근평 기사를 보았느냐? 이 시대의 화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총무과장은 "많이 있겠지만, '공정'이다"라고 유연하게 답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정'이 이 시대의 정신이라면 이번 하반기 인사는 직렬별로 배려하여 잡음이 최소화된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 조직 구성원이 상대적 박탈감, 조직에 대한 배신감, 업무 추진 쇠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사 시 업무 외적인 피드백을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도신문 2021.08.13.]

"'공정'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박인철 의원 : 공무직 관련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군 산하에 공무직이 많은 것 아시죠? 금방 370명? 공무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했을 것입니다. 또 섬으로 구성된 지역의 여건상 관리해야 할 시설물들이 여러 곳에 배치된 관계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직은 저도 공감합니다. 인력이 상당히 많이 … 370명으로 되어 있고 전체 인력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인 저부터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 앞으로 시설물이 늘어나면, 어저께 해양 치유를 했는데, 거기 공무직만 해도 계속 채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의원은 공무직 채용은 더 이상 멈추고 조직 진단을 다시 해서 효율적으로 근무지 배치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직 중에는 협업 부서, 격무 부서에 배치되어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출근해서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원성이 자자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현안을 시급히 파악하여 통합해도 무방한 곳은 통합 관리를 하도록 재배치하여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8쪽, 인사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인사행정 어렵죠?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이 답입니다. 공무원들이 재직하면서 희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 우리 직원들은 성과에 대해 승진으로 보상받기를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박인철 의원 : 그렇습니다. 진급 또는 보수 인상입니다. 지방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공무원의 평정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 성적 평가에 대해 물어 보고자 합니다. 근무 평가 대상자는 먼저 성과 계획서를 작성하고 추진 결과에 따라 근무 실적 평가 50점, 직무 수행 능력 50점을 평점으로 하시죠?

직무 수행 능력의 경우에는 기획력, 의사 전달력 등 8개의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항목별 기준을 보면 평가 시 객관성보다는 평정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예 없다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저희들 평정 규칙에 근무 성적을 평정할 때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서장님이 직원들과 가장 가깝게 있어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 평가 과정이 어떻게 됐든 하나의 기준이고 원칙이니까 믿겠습니다.

근무 평가를 개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죠? 근무 성적 평가는 어느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 승진 명부 작성이라든지 성과금 지급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 주로 인사에 활용하고 있죠? 이렇게 평가된 근무 성적은 경력 평가, 가산점 평점과 합산하여 승진 후보자 명부로 작성되고,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면 개인들에게 알려 주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미래 희망이 진급이고 그 기준이 근평과 승진 후보 순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헌신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승진 후보자 1순위가 되었는데, 2순위, 3순위에 밀려 승진에서 제외되었다면 당사자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런 실망감, 허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근평 1순위인데 승진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상당히 서운하고 실망감도 들 것입니다. 다만, 근평이 상위 수준에 있다면 언제라도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의 허탈감, 실망감을 저도 느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인철 의원 :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했는데.

총무과장 : 조만간에 기회가 올 것입니다.

박인철 의원 :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 조직의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

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 예를 들어, 승진 명부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대로 해 버리면 제일 편하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아쉬운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6급 이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 승진 순위를 지키려고 하는데, 5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사권자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 그러면 5급하고 6급은 어떤 차이입니까? 6급 이하는 근무 성적순대로 하고, 5급은 … 물론 인사권자 인정합니다. 인정하나, 근무 평점이 깡그리 무시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인사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사권자의 뜻이니까. 그러나 왜 근무 평점을 했습니까?

인사는 군청만의 인사가 아닙니다. 군민들에 대한 인사도 맞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우리 조직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말들이 들어올 수 있으며, 거기에는 진실이 있기도 하고 허구가 있기도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사자들은 서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무 성적 평정이라는 것이 부서장 고민의 시간이었다면, 승진 명부에 대해 배수를 선택하는 부분은 인사 부서와 부서장, 인사권자의 고민이 있을 수밖

에 없으니…….

하여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 승진 후보자가 배수 안에 있어서 누구를 승진시켜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인사에 있어서 평가 기준이 되는 근평이나 승진 후보자 순위 등은 지켜야 될 전부입니다.

과장님, 지역 신문 기사 중 근평 (청취 불능) 기사 보셨죠? 이 시대의 화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공정'인 것 같습니다.

박인철 의원 : 예, 공정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이번 인사는 6급 이하 승진을 대상으로 하고 직렬별로 배려하여 잡음이 최소화된 인사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이 상대적 박탈감, 조직에 대한 배신감, 업무 추진력 쇠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시고요. 인사 시 업무 외적인 요인이 (나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작용하지 않도록 피드백을 잘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 운영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293회 완도군 의회(임시회) 2021.08.12.]

● '공정'의 적

지난 10일부터 완도군 의회 임시회가 개회한 가운데, 11일에는 민선 7기 완도 군청 조직 개편안 용역이 1안부터 3안까지 군의회에 보고됐다. 당초 자치행정과장의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었으나, 의회에선 용역 조사를 실시한 행정발전연구원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설명을 듣고 난 뒤에 박인철 의원이 이렇게 지적했다.

"이번 군청 조직 개편안을 보면 3개의 국(局)을 신설하고 3개의 실과 소 증설, 예산 담당관 신설이 핵심이다. 실과 소 위에다 국을 두는 것은 효율성보다는 상명하복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조직을 경직시킬 것이다.

대통령이 지방 분권을 강조하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지방 분권이란 있을 수 없다. 지금 완도군에는 도장 찍고 결정만 내리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뛰어다닐 공무원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의 봉급 주기에도 빠듯한 재정 상태로 재정 자립도도 전국 최하위인데 공무원 수를 늘리고 고위직 공무원만 양산한다면, 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스스로 낭비하는 꼴이 된다.

현재 2~3명만 일하는 계가 많은데, 이런 데 대한 고민보다는 조직 개편만 서두르고 있다."

맞다. 어느 지자체든 작금의 현실은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철 밥통의 신화, 그 견고한 밥그릇의 전설을 깨기 위해 민간 기업의 첨단 인사, 평가, 직능 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지만, 개혁은 개편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 개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화뇌동과

경직화된 철 밥그릇을 깨는 것이 진짜다.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죽을 힘을 다해 뛰지 않으면 당장 내일 먹을 밥도 없다는 현실이 실감나게 다가와야만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말발이 먹히는 것이다.

'군수는 바뀌지만, 내 밥그릇은 영원하다!'는 신념. 공직 사회엔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그들끼리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그들을 들여다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폐쇄적이다. 그런 모습을 주민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다.

잘못된 일이 일어나더라도 서로의 자리바꿈 정도에서 징계가 끝나고, 언젠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 공직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공직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 지역 사회가 발전하기는 매우 어렵고 더딜 수밖에 없다.

조직 개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도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주민을 위한 공직 사회와 공직 문화가 뿌리 내릴 때, 행복한 군민과 풍요로운 완도 사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완도신문 2018.07.15.]

(2) 공무원이 갖춰야 할 두 번째 품성 - '성실'(誠實)

- 판박이 보고서

코로나19로 제293회 완도군 의회가 두 차례 연기되다가 11일과 12일 개회해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인철 의원이 완도 군정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11일 군정 업무 보고에 앞서 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21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서가 성의 없이 작성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작년, 재작년 것과 판박이 보고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생산적인 보고회가 되려면 업무 추진 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군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내년에 열리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와 관련된 업무 보고도 누락되었는데, 현재 우리 군의 해조류 산업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미역은 타 시군에 주도권을 내줬고, 다시마는 종사 인력의 한계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전복 산업의 어업인들은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로 해조류 박람회는 하나의 희망이 되기도 하여 많은 고민과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업무 보고에서 빠졌다는 건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면서 "박람회 지원팀이 속한 해양정책과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허궁의 의장은 "박인철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2021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서를 사전 검토한 결과 작성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몇몇 부서는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진정으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성의 없이 누락된 보고서여서 군민들이 보고서를 열람하고 군 산하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앞선다"면서 박 의원의 비판에 가세했다. [완도신문 2021.08.13.]

● '불성실'은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제293회 완도군 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되는 2021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1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서가 성의 없이 작성되었음이 너무나 역력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 팬더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되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는 조금이라도 군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보고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받아 본 보고서는 너무나 성의 없이 작성되어 작년, 재작년 것과 동일한 판박이 보고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생산적인 보고회가 되려면, 업무 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는 유권자인 군민들에게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단지, 그 형식을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 할 뿐입니다. 업무 추진 시 정말로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을 모르고 있는지?

그나마 일부 부서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되는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등 문제점 위주의 생산적인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에 열리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관련 업무 보고 누락입니다. 본 의원은 해조류 박람회 성과는 별도로 하고 개최 취지에 대해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해조류 산업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미역은 타 시군에 주도권을 내준 지 오래되었고, 가격 또한 감량을 감안하면 40년 전 가격보다 낮습니다. 다시마는 종사 인력의 한계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톳 또한 과다한 재고 물량으로 어가들은 생산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수산의 주력 산업인 전복 산업의 어업인들은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해조류 박람회는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팬더믹 시대에 개최되는 해조류 박람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 군민이 똘똘 뭉쳐서 추진한다 해도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전 군민이 함께해야 할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업무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군민들을 경시한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대의 기관인 의회를 무시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하여 설립된 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관계자의 의회 출석 조치에 한계가 있다면, 박람회 지원팀이 속한 해양정책과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3회 완도군 의회 2021.08.11. 5분 연설]

(3) 공무원이 갖춰야 할 세 번째 품성 - '청렴'(淸廉)

● 청렴도 21위

완도 군청의 일부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음주나 도박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

박인철 군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완도군 의회 제267회 임시회 기획예산담당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에서 "우리 군의 지난해 청렴도 중 외부 청렴도가 4등급, 내부 청렴도도 4등급으로서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21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하고 나서, 일부 공무원의 근무 시간 중 음주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18년도는 잘못된 조직 개편으로 공무원 청렴도 측정 시 많은 공무원들이 인사 분야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 인사 분야가 청렴하지 않았다고 점수를 준 것 같다. 청렴도 측정에서 외부 청렴도는 공무원들의 친절과 밀접하고, 내부 청렴도는 공무원의 인사와 애사심과 관련하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5급 사무관은 지방 자치 단체의 꽃이다. 이런 분들이 근무 시간에 술을 먹거나, 저녁에 술을 많이 먹고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거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 연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이다. … 퇴근 후에 술을 마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어떤 지역은 민원 처리를 이유로 도박을 하는 등 민원 해결을 이유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까지 불러내어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상시 감사도 있지만, 수시 감사와 암행 감사로 적극 대처하고 상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은"우리 군의 청렴도와 관련해 공사 관리 감독 분야가 미흡하나마 상승하고, 공무원의 불친절, 업무 미숙 등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내부 청렴도는 부당한 업무 지시 경험, 부패 사건 등이 청렴도를 낮게 했다"고 청렴도 하락 원인을 설명했다.

또 "승진 및 전보 인사와 잦은 자리 이동으로 불만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 시간 음주는 공직 감찰을 강화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상시 및 수시 감찰을 강화하고,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도군민신문 2019.02.15.]

● 꽃의 반란

박인철 의원 : 우리 군의 청렴도 측정 결과, 외부 청렴도가 4등급, 내부 청렴도가 4등급인데 도내에서는 몇 위입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 : 19위.

박인철 의원 : 21위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인철 의원 : 청렴도 측정 결과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공사 관리 감독 분야의 청렴도는 조금 상승했습니다. 보조금 지원 및 제세정 분야에서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과 불친절로 해서 낮게 측정된 부분이 있고요. 내부 청렴도는 부당한 업무 지시 경험과 부패 사건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 지난 청렴도를 보면 내부 청렴도는 인사 분야에서 2016년, 2017년도에는 10점 만점인데, 2018년도에는 평균보다 현저히 떨어진 7.7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를 제가 추측해 보건대 2016년도, 2017년도 인사는 그래도 예측 가능한 인사였고, 공무원들에게 약간의 불만이 있었지만 대부분 수긍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잘못된 조직 개편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을 표출해서 이런 점수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전보 승진 및 전보 인사 인원이 좀 많았고요. 잦은 자리 이동과 그로 인한 소외자가 발생해서 불만 사항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인철 의원 : 청렴도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부 청렴도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친절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내부 청렴도의 경우에는 인사 부분과 직원들의 애사심, 즉 내가 다니는 긍지

와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담당관님, 상시 감사(常時監査)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 5급 사무관이면 우리 군의 꽃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근무 중에 술을 먹고, 또 저녁에 술을 많이 먹고 다음 날 출근을 안 하고, 무슨 일이 터지면 연가를 내버리고 … 압니까, 모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박인철 의원 :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공무원의 꽃이고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야 할 5급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업무 중에 술을 먹어 버리고, 직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술을 먹고. 일과 후에 술을 먹는 것은 뭐라고 안 합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근무지에 무슨 일이 있으면 출근을 못해 가지고 … 책임자라면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데 출근을 못해 가지고 … 무슨 일이 발생하면 연가를 내버리고. 이것이 완도군의 실정이에요. 이런데 무슨 청렴도가 올라가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 그 부분은 공직 감찰을 더 강화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박인철 의원 : 또 어떤 면(面)에 보면, 직원들이 낮에 민원 처리한다고 해 가지고 노름방에 앉아 있고……. 이것은 담당관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실과장님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위계질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전부 다시 한 번 돌이켜봐야 돼요.

민원, 좋습니다. 민원인을 만나서 술 한 잔 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어디 근무 중에 나가서 술을 먹고, 잘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나오라고 해서 술을 먹고 이런 행태예요. 이런 것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기 감사에 보니까 1년에 8개를 한다고 하는데, 상시 감사가 있지만 수시 감사하십시오, 암행 감사하시라고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상벌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제보해 주시면 나가서 철저히 적발하도록 하겠고요.

박인철 의원 : 아니, 나도 듣고 있는데 왜 군에서는 못 듣고 있냐는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 예, 상시, 수시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박인철 의원 :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꽃들이 잘 피어야 밑에서 잘 할 것 아닙니까? 위에서 그렇게 해 버리면 직원들은 누구한테서 업무를 배우고, 누구를 본받을 것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관계만큼은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제267회 완도군 의회(임시회) 2019.2.12.]

(4) 공무원이 갖춰야 할 네 번째 품성 - '전문성'(專門性)

● "얼척이 없는" 인사

지난 12일부터 제267회 완도군 의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2019 완도 군정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박인철 의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직종과 직렬,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데, 2018년 조직 개편과 2019년 상반기 인사와 관련해서 이 같은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완도 군청 사무관과 국·단장의 경력을 보면 3개월, 5개월, 6개월, 9개월짜리 인사가 태반이라면서 "이래서 무슨 전문성이 있겠냐? 2014~2019년 인사를 보면 얼척이 없는데, 1년이 넘어간 인사도 없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완도신문 2019.03.08.]

주변에서 말하는 '박인철'

정치학자들이 정의하는 '생활 정치'란 '생활 세계적 이슈들에 더하여 민생적인 이슈들을 다루는 정치'를 말한다.

생활 정치의 5대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 영역인 성장과 일자리
② 사회 영역으로 주거와 노후, 사회적 약자 보호를 포함한 복지, 환경, 여성, 지역 청소년을 위한 발전적 형태
③ 문화 영역으로 교육과 능동적 문화생활
④ 지방 자치 영역으로 지역 균형 발전
⑤ 세계화 영역으로 노동력의 국제적 이주와 다문화주의와 관련한 정치

제7대 군의원 중에 생활 정치 측면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고 평가받는 이는 박인철 의원이다.

완도읍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완도군에서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목욕 권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나 살펴보다가 박인철 군의원이 조

례를 발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과거의 군의원이라면, 일단 자기 지역에 사업을 챙겨 주는 것을 최고로 쳤지만, 이는 또 다른 유착 관계와 병폐를 만들었다. 이젠 주민들 모두가 이익이 되는 이런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

김 모 씨는 시민 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이런 점도 덧붙였다.

"실상 군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파악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데, 특히나 공무원들이 직접 예산을 다루다 보니 낭비하기가 쉽다.

박인철 의원이 발의한 정책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책임지는 정책 이력제 조례는 제정 낭비를 최소화해 군 살림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한 생활 정치의 대표적인 규범 사례였다."

또 완도 군청에 근무하는 A 씨는 이런 말을 했다.

"대개 군의원들은 본 회의장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할 때가 많은데, 공무원들이 이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호통부터 쳐서 상황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럴 땐 공무원도 앙금이 남는다.

박인철 의원의 경우엔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공개 질의에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 공무원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지적 받는다는 느낌이 안 든다."

지역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제7대 군의원 가운데 장족의 발전을 거듭한 의원으로 박인철 의원을 꼽는다.

언론인 B 씨는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이 초창기에만 해도 열의는 있었지만 핵심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고 서툴렀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공부하는 의원으로서 다

양한 현장 견학과 함께, 언론 청취,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등 제대로 된 생활 정치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박 의원은 소신을 가진 정치인이며, 그 소신은 무작정 나만 따르라는 한 방향적인 지도자의 목소리는 아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도 포용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더욱 신뢰나 호응을 얻어 가는 생활 정치를 펼치고 있다."

1톤 화물 트럭을 타고 의회에 출퇴근하면서 형식과 의전보다는 민생 현장을 더 살피며, 생활 정치 측면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고 평가받는 박인철 의원에 대해, 지역 정객 이 모 씨는 이렇게 말했다.

"박인철 의원의 경우엔, 의정 활동 중 정책 발의도 활발했고 대민 접촉에서도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인인 A 씨는 "박인철 의원은 약점이 없는 군의원이다. 사람이 좋다는 것이 장점이면서 또 단점인데, 남에게 베푸는 성정(性情)으로 인해 상처도 컸고 손해도 많이 본 케이스다"라고 인물평을 했다.

민주당 당직자인 임 모 씨는 "박인철 의원의 경우에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성실함과 신뢰감으로 쌓아 온 인덕이 자신이 보유한 가장 큰 자산인 셈이다. 이런 생활 정치인들은 발전 가능성이 크고 지역 정치에서도 귀감이 된다"고 말했다.

정객 김 모 씨는 이렇게 말했다.

"선거 분석적으로 볼 때도 금권 선거가 아닌 여론의 지지를 받았던 후보자는 차기 선거에서도 하락 폭이 거의 없다."

제8대 의회에 들어서면서 박인철 의원의 의정 활동은 초선 의원들과는 달리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다. 완도 군정에 대해 날카롭고 심도 있는 질문 또한 많았다.

완도항 개발 전략과 관련해서는, 협소한 항만 정원 수역을 어떻게 확보하고 부족한 항만 인프라를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며, 항만 이용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는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다. 대체로 연근해 선단 완도항 유치와 이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현안 질문들이 많았다.

군의회 전문 위원들이 작성해 준 보고 읽기 수준의 낭독이 아닌 현장에서 체득한 민생들이 주류를 이뤘다. 의원 역량을 가늠하는 보충 질의도 돋보였다.

하반기 원 구성 이후의 군정 질문에서는 군수와 대립각을 크게 세웠다. 특히 군수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과 관련하여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완도 수산물 소비 침체에 대한 원인이 과잉 생산에 있는지, 행정의 마케팅 방법에 있는지 민생에 대해서도 날선 질의가 있었다.

정객 A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선으로 이뤄진 8대 의회는 역대 의회 중 가장 약체로 평가받고 있지만, 가장 두각을 나타낸 의원은 역시나 재선의 박인철 의원이다. 젊은 시절 참여연대 활동으로 나름의 비판 의식을 가졌기에 집행부 견제에서도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출처 : 완도신문]

매일 아침 일어나 제일 먼저 뉴스를 확인하고, 8시면 시내를 돌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다. 장애인 협회 등 사회단체를 찾기도 하고, 지역 노조를 방문해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의 관심사항과 민원을 찾아 섬이라도 망설임 없이 찾아간다.

주위 사람들에게서 '큰 귀'로 소문이 나 있다. 실제로 귀가 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군민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귀를 기울이다 보니 그런 말을 듣는 것 같다.

지역민들을 자주 만나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노력한다. 자주 만나야 알지 못했던 작은 목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 아주 사소한 것, 경로당에 필요한 작은 것들, 주민 생활에 도움이나 불편을 주는 사항까지 다 들으려고 하면 주민들은 진솔하게 털어놓는다.

군의원은 군민들과 함께 생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회 안에 있으면 주민들의 답답함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밖에서 직접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느끼는 것도 많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비정부 기구(NGO)에서 활동할 때 한계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제도권 안에서 지역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군의원이 된 계기이면서 지역을 위한 더 큰 일을 하자는 생각이기도 했다.

특히 완도군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군정의 동반자로서 군정 질문 시 '완도타워에서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을 잇는 해상케이블카 사업'

과 완도읍 시내에서 상황봉까지 걸어가는 등산 코스 신설을 위해 '서망산에서 현대아파트 뒤쪽 산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설치' 제안에 대해 군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며 군의원으로서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꼈다.

나는 평소에 군민들을 만나거나 민원을 상담하는 의정 활동을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한다. 그것은 의정 활동을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군의원 임기 말에 주민들에게서 "선택 잘했다"는 말을 듣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결국 주민들이 알아볼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선택되고 인정받는 생활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